

맛따라 맛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13 남도 봄여행 상품 20선

매화·산수유 그리고 섬...풍성한 봄잔치

별미기행·도라지 캐기 등 행사 다채

매화와 산수유가 만개한 남도 곳곳에선 이미 꽃 잔치가 한창이다.

'2008 광주·전남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도는 20개 남도 봄맞이 여행상품을 선정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표 참조>

남도의 절경과 꽃길을 따라 구성된 이들 상품은 봄나들이에 제격이다. 흥도, 보길도, 청산도 등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들과 매화, 산수유 향기 그윽한 구례와 광양, 강진과 장흥의 별미기행에서부터 보성 녹차밭에 이르는 다양한 코스를 지역별, 테마별로 엮었다.

외지 관광객 유치에 힘써 여행사 상품은 대부분 서울을 출발 기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 관광객들도 행사 상품의 내용과 여정을 꼼꼼히 살핀 뒤 이를 응용해 개별적으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짜보면 후회없는 여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도 꽃타령 가세'(산바다여행)는 화엄사→다무라마을→농산물장터→구례 산수유마을→광양 매화마을을 잇는 코스로, 산수유 꽃과 매화 구경이 알짜다.

구례 산수유마을은 흡사 노랑고 쉼터란 비단 한 폭을 풀어 놓은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든다. 벚꽃처럼 화사함은 부족하지만 개나리꽃을 닮아 은은하게 풍겨나는 멋이 있고, 나무마다 살아온 세월에 따라 그려낸 멋에서 한쪽의 수채화를 맛보게 한다.

'봄맞이하러 가세'(롯데관광)도 매화와 산수유를 원없이 볼 수 있는 상품이다. 드라마 '다모' 촬영지로 유명한 섬진강 매화마을에서 수천개의 장독대를 따라 하얀 꽃비를 맞으며 봄날 향연을 즐긴다. 이어 도라지 캐기 체험으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낸 뒤 옥룡사지, 천년고찰 천은사, 산수유마을 등으로 이어지는 코스는 그야말로 일상 탈출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준다.

'봄꽃향연과 공룡 발자국'(롯데관광)은 목포(개나리, 자연사박물관)를 거쳐 땅끝인 해남에서 봄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두륜산을 보고 공룡박물관에 들른 뒤, 보해마을 농원에서 봄의 정령 매화를 만난다.

언제나 한번은 가보리라 맘먹었던 섬에서의 봄도 특별한 추억이 된다.

'흥도·흑산도'(아름, 흥익여행사) 상품은 학창시절의 기차여행을 회상할만한 물론 쾌속선을 타며 직장에 찌든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다. KTX나 기차를 타고 목포까지 내달린 후 쾌속선으로 흥도에 도착해 일주도로를 따라 흥도 해안 일주를 즐긴다. 다음날 유람선을 타고 천연기념물 흥도의 아름다운 바다와 어우러진 남문바위, 촛대바위 등을 둘러보면 기암괴석들이 빚어낸 조각 같은 풍경에 2시간 30분의 유람선 시간은 오히려 아쉬움이 남는다.

'다도해의 절경 거문도 백도'는 거문도의 등대에서 사진촬영을 한 뒤, 동백을 보고 백도를 거쳐 여수 오동도에서 다시 동백을 보는 그야말로 붉은 동백꽃에 물드는 일정이다.

'남도여행의 최고 메뉴는 역시 먹거리 관광이다.' '남도음식 별미기행'의 첫 코스는 남도답사1번지 강진에서의 한정식 식사다. 식사를 마치고 강진 백련사·마량항에 들러 봄바람을 맞은 뒤, 저녁에는 또다시 장흥 토요시장에서 들러 키조개정식을 맛본다. 다음 날에는 보성 녹차밭에서 봄의 한가로운 느낌을 느끼고 배가 고파질 때면 별미인 피막정식을 먹는다.

'푸른 담양 웰빙 화순'은 담양(죽녹원, 관방제림, 원장마을, 명옥헌, 소쇄원)과 화순(물영정, 들국화마을, 운주사)을 잇는 짙은 드라이브 코스다.

'환상의 섬 증도유람과 맛기행'(다음레저)은 증도를 시작으로 강진(녹차밭, 무위사), 장흥(토요시장), 순천만, 광양(매화마을), 화엄사 등 볼거리가 다양한 상품이다.

지역 대표 축제인 함평 나비곤충엑스포 행사장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도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추천할 만하다.

'나비아 날아 구름속 가거도 보러가자'(토투투어)는 함평 나비곤충엑스포 행사장과 목포(해양유물전시장, 유달산)를 거쳐 가거도 8비경 등을 즐기며 한가로운 봄날을 보낼 수 있다. '나비곤충엑스포와 슬로시티'(솔향공여행)는 함평 나비곤충엑스포 행사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낸 뒤 증도(우전해수욕장, 고사리캐기, 태평염전, 소금박물관)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함평나비곤충엑스포와 청산도를 연계한 나들이도 어느 코스에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다.



지난 22일 광주시 광산구 평동의 한 시설재배농가에서 진행된 '빛고을 그린투어' 방울토마토 수확 체험에는 100여명이 가족단위로 참여해 수확의 기쁨을 만끽했다.

김치 담그고 방울토마토 따고

광주시 농촌체험 '빛고을 그린투어' 운영

'새콤달콤 방울토마토 직접 수확해 맛보세요' 광주시가 농촌체험 프로그램인 '빛고을 그린투어'를 마련, 2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빛고을 그린투어'는 가족단위로 영농은 물론 음식만들기 등 다양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일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모내기에서부터 방울토마토 따기, 감자캐기, 복분자따기 등 농산물 수확체험과 천연염색, 인절미와 우리말빵 만들기, 김치담그기, 도예체험 등 계절별로 다양한 문화체험 이벤트가 진행된다.

지난 22일 광주시 광산구 평동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방울토마토 수확 체험에는 100여명이 가족단위로 참여해 선별처리장 견학과 방울토마토 따기, 봄꽃심기 등을 즐겼다. 시는 농촌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빛고을 그린투어 동아리'를 구성, 안내와 체험 차량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 농촌체험에는 지난 2006년 505명(12회), 지난해에는 686명(16회)이 참여했고 올해는 800여명을 목표로 진행된다.

신청은 광주시 농촌체험 홈페이지(http://greentour.gcity.net)를 통해 받고 있다.

Table with 3 columns: 상품명, 주요일정, 여행사. Lists 20 travel products for spring in Jeonnam.

Advertisement for Sense Wood 신품가구 80~70% Big Sale. Features a grid of furniture images and promotional text.